

광주, 국립문화시설 유치...전남, 석유화학 대전환 역점

시·도, 6·3 대선 공약 중점 과제 발굴 분주...국정과제 반영 총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청·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 등 선정

6월 3일 조기 대선에 나서는 출마자와 각 정당에게 전달될 광주·전남의 핵심 지역 공약이 발굴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속가능한 광주·전남을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지역 공약을 짰다. 또 미래성장 동력인 중점·핵심 과제들이 대선공약과 차기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기로 했다.

◇첨단산업 육성·국립문화시설 유치= 광주시는 'AI(인공지능) 모델시티'·'최첨단 미래 모빌리티 신도시' 조성 '3대 국립 문화시설' (국립현대미술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국회도서관 광주관) 유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청'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안했다.

AI모델시티는 데이터 집적(데이터 뱅크·마켓), 데이터 학습(국가AI컴퓨팅센터, 국가AI데이터센터), 데이터 활용(디지털 트윈, AI기업 유치) 생태계 조성을 통해 AI 기반 순환경제 기틀 마련해 AI 초연결시티 기반을 구축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10조원의 예산을 들여 10만장 이상 GPU가 설치된 초거대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구축, 글로벌 AX실용벨리(AI2단계 사업) 조성(9000억원), AI 데이터 뱅크 구축 및 메가 샌드박스 지정(1조원) 등의 주요사업으로 구성했다.

빛그린·미래재 국가산단 일대(991만7355㎡·300만평)에 최첨단 미래 모빌리티 신도시를 조성하는 안도 마련했다.

기업은 신기술·신사업을 마음껏 실험하고,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이 일상이 되는, 국내

최초 미래형 기업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AI·모빌리티 융합 메가 샌드박스 시범 신도시 조성(1조8000억원),광주송정역과 영광을 잇는 광주 신(新)산업선 일반철도 건설(1조9000억원), 미래 모빌리티 테스트베드인 인공지능(AI) 융합 자율주행 시험장(PG) 구축 등 AI·모빌리티 판기술 클러스터 조성(1조4000억원)등의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청을 신설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국가가 안정적으로 펼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보를 위해 국립 문화시설 조성 계획도 포함됐다.

또 광주시는 조광역단위 국가사업과 통합을 위한 국가과제도 발굴했다.

국가주도 서남권 만·군 통합 관문공항 조성(9조원)을 추진해 광주·전남·전북을 잇는 서남권 메가 시티를 만들어 남도의 맛과 멋을 살린 글로벌 관광거점 육성 등을 제시한 것이다.

강 시장은 "차기정부에게 보내는 '광주의 제안'은 'AI주도 초격차 성장도시, 광주'"라면서 "과거의 광주가 오늘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뿌리가 됐듯 이제는 오늘의 광주가 대한민국의 내일에 새로운 활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각 정당의 공약과 차기정부 국정과제에 '광주의 제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의대 신설 등 인프라 확충=전남도의 대선 공약 건의과제는 모두 75건으로 핵심과제 20건, 지



강기정(왼쪽) 광주시장과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이 8일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에서 조기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광주시와 전남도의 지역 대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전남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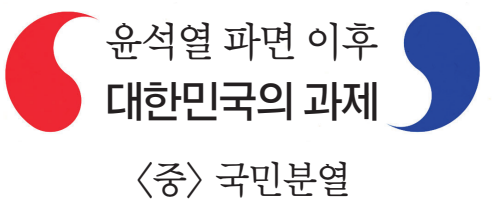
역발전과제 35건, 제도개선 20건으로 구성됐다.

핵심과제는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으로, 전남도는 통합대학교(목포대+순천대) 의대신설과 함께 상급종합병원 건립을 첫번째 핵심 과제로 꼽았다.

또 전남 산업의 '기동'인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대

전환 프로젝트도 채택했다.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이 대내외적 위기로 위축되고 있는만큼, 대대적인 사업재편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도는 두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고 제2의 석유화학산단 지정 및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건강한 공론의 장 회복으로 거짓 선동 근절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헌법의 가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혼란과 분열을 종식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우리 국민과 헌법재판소는 흔들리지 않는 법의 가치에 따라 놀라운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다.

이에따라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각 진영의 논리만을 대변하며 각종 법원 판결에 토를 달거나 불복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법치를 우선해야 할 정치권이 사법부를 불신해왔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이후 더욱 커진 느낌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

민주주의 회복력 보여준 국민·헌재 차별·배척 진영논리 공격 멈추고
분열로 이익보려는 특정 집단 경계

가다. 계엄 이후 '아스팔트 극우'는 사법부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특히 '헌재를 부수어야 한다'는 선동을 국민의힘 의원이 보란 듯이 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현재의 결정에 따라 사법부에 승복하는 풍토를 정치권이 만들어야 가야 하고, 국민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대부분 국민들의 소망과 기대다. 또 디지털 허위정보와 극단세력의 거짓 선동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국민통합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4일 현재는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과 일부 극우 세력이 탄핵 사유로 지정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 주장과 예산안 처리 문제 등은 국회 안에서 여야가 협의를 하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 등을 통해 조율해야 할 문제라고 현재가 지적한 셈이다.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군대를 동원해 강압적으로 풀려고 했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여야간 갈등, 정권과 야당의 반목은 자연스러운 '정치적 일상'이었다. 과거 정치권은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며 여야간 대화, 영수회담 등을 통해 '생각의 간극'을 줄이며 협의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이전부터 윤 전 대통령과 정치권은 이 같은 협의와 협상에 나서지 않은 채 각자의 주장만을 되풀이했고, 이는 양 진영에도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

특히 지난 2023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며 국민 분열의 실태탄을 쏘아 올렸다.

정치권과 종교계마저 이 같은 '갈라치기'에 뛰어들면서 국민 분열을 조장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실제, 탄핵 심판 이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보수단체 집회에 참가해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며 메시지를 보냈고,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정광훈 목사는 "헌법재판소의 권위보다 국민저항권의 권위가 그 위에 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국민저항권으로 해체시켜야 한다"며 부추기고 있다.

무엇보다도 파면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마저 대국민 사과나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격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도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앞선 대선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은 "열 가지 중 아홉 가지 생각은 달라도...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기업도시 솔라시도 내 '인공지능(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넓은 땅과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보유한 전남이 AI 인프라를 구축하기에 최적지라며 솔라시도 내 허브 구축을 국가정책사업으로 확정해 줄것을 요구했다.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무안공항을 국제 주요 국제공항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한 동북아시아의 대표 관문으로 육성하자는 내용으로, 이와 함께 광주 군·민간 공항 통합이전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요구를 담아냈다.

전남도는 지방소멸 위기를 위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안도 건의할 계획이다. 20개 핵심과제에는 이밖에 ▲AI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문화 거점 조성 ▲'K-김' 국가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광융합 극한에너지 국가 첨단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문화사업 메가 'K-디즈니' 조성 ▲전남·광주 첨단반도체 벨트 구축 ▲K-노벨문학 메카 조성 등이 채택됐다.

또 여수산단 진입도로(이순신대교) 국가관리 지원원 등 시급한 SOC 구축 과제들도 67지를 채택했다. 전남도는 미래농어업(7개), 관광·문화·휴양(8개), 인구·복지(6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발전과제를 선정했다.

전남도는 도가 시행중인 '명품' 사업의 전국화도 제한할 계획이다. 전남형 만원주택과 출생기본수당, 손자녀 돌봄 지원, 산지 쉼장 안정화 등 20개 과제를 국가차원의 국정과제로 확대할 것을 주문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탄핵 심판 이후 가장 중요한 것도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 윤 전 대통령도 정치권도 국민을 분열시켜 이익을 얻으려는 그 어떤 행동도 중단해야 한다.

여야는 조기대선 국면 속에서도 산발 피해 지원을 위한 투쟁 논의 등 여야 협의와 합의에 나서야 한다. 여야가 견제와 감시 속에서 공론의 장을 만드는 '정치 시스템'을 복원해야 이를 지켜보는 국민도 아집과 독선에서 벗어나 '상식의 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진영을 배척하고 공격하는 일부 국민의 맹목적인 폭력과 주장도 멈춰야 한다. '확인된 사실'을 믿는 게 통합의 시작이며, 건강한 공론의 장 회복을 위해서는 허위정보를 확대·재생산하는 극단세력의 거짓 선동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

이에 정치권은 최근 조희승 등을 버는 '사이버 레거'의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썬광 방지법', 자동추천 알고리즘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뇌섹을 방지법' 등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박군택(광산갑) 국회의원은 "계엄·탄핵 사태의 국민 분열 과정에 이익을 보거나 특정한 의도가 있었던 집단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중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신

광양시 공고 제2025-864호

광양시 친환경 자원순환단지(소각시설등) 설치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 합동 설명회 개최공고

「광양시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기후변화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공람과 더불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 주민설명회를 포함한 합동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광 양 시 장

1. 계획의 개요

• 계 회 명 : 광양시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사업

• 위 치 :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일원

• 시설규모

- 부지면적 : 약 66,000㎡ 이상

- 시설용량 : 소각시설 220톤/일, 재활용품 선별시설 30톤/일,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90톤/일 (음식물 70톤/일, 가축분뇨 20톤/일)

※ 시설규모는 계획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계획수립기관 : 광양시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5년 4월 9일(수) ~ 2025년 5월 12일(월)
(영월 9시부터 18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 : 현장 및 온라인

- 현 장 : 3곳 (광양시청, 광양읍사무소, 광양동주민센터)

- 온라인 : 광양시 누리집(https://gwangyang.go.kr), 요약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eiaass.go.kr)

• 공람내용 및 관계도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및 요약문(공람장소에 비치)

3. 합동 설명회 개최

• 개최일시 : 2025년 4월 16일(수) 14:00

• 개최장소 : 광양시 사랑실 예술촌 전시체험실(광양읍 사곡로 201)

• 개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과정 및 결과 주민설명회 등

4.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람기간 시작일로부터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2025년 5월 19일까지)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eiaass.go.kr)에 의견 등록

5. 기타사항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및 공고문은 광양시 누리집 (https://gwangyang.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eiaass.go.kr)에 게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자원순환과(☎061-797-29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5년 3월 5일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을 결의하였으며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농협회사법인 주식회사 녹색솔
광주광역시 서구 풍서우로 378, 4층
(백진동)
청산인 정 예 선

분할합병공고
(채권자의의 및 주권채를 공고)

주식회사 솔에너지(이하 "갑")와 주식회사 승주정보(이하 "을")는 2025년 4월 8일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을"의 정보통신사업 영업 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문을 "갑"과 분할합병하고 "을"의 분할된 부문의 권리와 의무를 "갑"이 승계하고 양 회사는 존속하며 합병 제530조의9 제3항에 따라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의사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제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5년 4월 9일
"갑" 주식회사 솔에너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서8길 31
대표이사 이순자
"을" 주식회사 승주정보
광주광역시 서구 원마복2길 18(마복동)
대표이사 김영식

판 결 공 시

•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3고단243 강제추행

• 피고인 : 조인현

위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5년 4월 8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사 전 경 태

73년을 밝히는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 지역안내 •

북 구

• 동 266-1920 • 문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222-8171
• 영 산 571-7658 • 오 치 266-7001
• 용 433-1503 • 우 선 433-1503

동 구

• 광 673-6836 • 동 222-9054
• 동 부 225-6001 • 송 222-9054
• 송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651-1833
• 북광주 525-3761 • 신 376-7153
• 진 671-7276

서 구

• 광 382-5788 • 신 372-2352
• 서광주 369-1625 • 문 376-7153
• 치 376-6511 • 용 603-0311
• 화 369-1625

광산구

• 문 952-1687 • 월 959-1920
• 천 973-2900 • 하 955-0451
• 광 선 944-0444